



여수 송기홍



영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자격 소득 판정방식과 정부지원금 달라

광양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난 1일부터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산생아 돌봄과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 주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 서비스 변경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서비스 자격 소득 판정방식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

우선, 기존의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가'형, 50%초과 60% 이하는 '나'형, 60%초과 80%이하는 '다'형, 80%초과(예외지원)는 '라'형 등 4단계로 판정해 왔었다.

이번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 기준 변경으로 '가'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나'와 '다'형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으로 변경돼 통합됐다. '라'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맞춰 정부지원금도 첫째 아이를 둔 가정에서 표준(10일) 서비스 이용 시 '가'형은 기존대로 7만

4000원을 받으며, '나'와 '다'형의 통합형은 62만9000원으로 변경된다. 준비서류도 '가'형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등으로 변경됐으며, '나'와 '다'형의 통합형은 기존대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광립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신청 대상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추억속으로 여행' 순천드라마 촬영장 환경 개선

노후 세트장 정비로 관람객 안전도모와 체류형 관광활성화



순천시는 드라마촬영장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드라마촬영장내 시가지 및 달동네 세트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협상공모 제안방식으로 지난 4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번달 28일까지 제안서 접수, 금년 10월말

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국비 및 시비포함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2006년 준공 당시 임시가설건축물로 건립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관람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최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드라마촬영장에 철쭉동산,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류형관광 유도를 위해 실내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마무리 예정이다.

채승연 관광진흥과장은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찾는 관람객은 2016년 65만 명, 2017년 74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로 여행 온 느낌으로 추억과 향수를 체험하는 도심 대표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드라마촬영장은 60~70년대 순천읍내거리, 서울 번두리, 달동네를 재현한 곳으로 2006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로 설립돼 '살인자의 기억법'과 'V.I.P' 등 총 47편의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 한 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소규모재생사업' 2개소 최종선정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결과 광영동과 태인동 등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5억 4천백 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제안하고, 도시 재생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성격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최최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2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특히,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이 지난 7월 3일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 빛가람동, 제 2회 은빛공예교실 운영

놀이 공예 통한 치매 예방·뇌 건강 증진...총 30회 경로당 순회

나주시 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성은, 장영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인 '빛가람 팡! 팡!' 은빛공예교실 (이하 은빛공예교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협의체는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분사업 예산 230만 원과 빛가람동 한가람내과 후원금 300만 원 등 총 530만 원을 투입해 관내 10개 경로당 145명 어르신이 참여하는 제 2회 은빛공예교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은빛공예교실은 지난 해 읍·면·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손놀이 공예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2회 은빛공예교실은 지난 5일 우미린 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30회(주 2회)에 걸쳐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특히 '우리지역 복지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읍·면·동 복지하브화의 취지에 부응해 민·관 협력을 기반 한 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로 진행할 계획으로 의미를 더한다.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안을 반영해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317개 과제(법령 144, 계획 9, 사업 161, 홍보 3)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은 '16년도 대비 35.4% 상승, '18년도 성인지예산 연계율은 '17년 대비 61% 증가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성인지력 향상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313명의 직원이 교육 이수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허석 시장은 "순천을 순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차별없는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젠더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3급 문해교육사 37명 배출



화순군은 6일 하니문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문해교육사 기본 과정을 이수한 37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교육생 전원은 수료증과 함께 문

해교육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다.

이번 과정은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화순군과 (사)한국 문해교육협회 공동주관으로 4주(48시간) 걸쳐 운영됐으며 '문해교육 수업안 개발, 교육방법론' 등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구충곤 군수는 교육생 한분 한분 수료증을 전달하며 "앞으로 비문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길 바란다"며 "수료식이 끝이 아닌

문해교육사로서 첫 출발점으로 현장에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수료생 김도씨(여 47세)는 "이번 교육을 통해 문해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배운 것을 활용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문해교육사가 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화순군은 29개소에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비문해율 감소를 목표로 하여 금년 양성된 교육생 37명을 지역의 비문해학습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